

연중 제20주일

기도서 415면 (B해)

제1독서: 잠 언 9, 1-6

제2독서: 에페 5, 15-20

복음: 요 한 6, 51-58

# 숲정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요한 6, 51)

## 강론

### 당신은 초대 받았소!

양경배 신부 / 고산주임

요즘 같은 불볕 더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피서는 제 5공화국의 비리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 상선벌악으로 결론을 짓는 일이전만 되어 가는 꼴들은 더욱더 숨통만 막히게 한다.

제 5공화국 때 손중의 손인 이순자는 소위 재벌들에게 '청화대 초청' 전화를 수없이 걸었다 한다. 우리 같으면 초청받았기에 목욕재계하고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었을 것인데 정작 재벌들은 그 순간 부터 밥맛을 잃으면서 끙끙 앓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청화대 초청이 무엇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초청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상납하는 절차로서의 초청이기에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재벌들은 공통적으로 '청화대 전화 기피증 환자'가 되어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

미사는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당신 집에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말씀의 전례) 들려 주신 뒤 세상의 죄와 악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성찬의 전례) 음식으로 주시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주님은 미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살이에 얼마나 고생을 하였느냐. 너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기쁨을 느낀다. 항상 내 유언의 말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잊지말아라. 자, 이제 내가 주는 이 천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서 힘을 내어라.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너희는 이것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 어서 먹고 힘을 내어라.” 그리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미사는 바로 이러한 초대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혹시 이 순자의 청화대 초대로 착각을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미사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기 보다는 그 무엇인가에 짓눌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미사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초대 자리이다.

오늘도 우리는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초대받은 자로서 성당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앉아 있는가?

당신은 초대 받았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빵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시다.

## 소리

### 국민은 아직도 우민인가?

지난해 6월항쟁 이후 우리 국민은 민주화의 꿈을 착실히 실현해 가고 있다.

6.29선언, 합의개헌, 대통령직선, 소선거구제(총선, 그리고 국회특위활동등. 여소 야대의 국회와 정치인들은 그동안 정계만이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불명예를 씻으려는 듯 오히려 야권에서 올림픽기간중 정치휴전 용의를 밝히는 등 종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주도해야 할 여권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지난 1일엔 모당의 지도자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더니 2일엔 여당의 지도자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각제 전환과 연정구상을 말한 것이다. 또 여당의 모 중진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88뒤 일부 야당과의 연정 필요성과 장기 전망으로 내각제 검토 등의 발언을 하여 국내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다.

여야합의로 개헌한 헌법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데다가 더우기 국민의 관심이 5공비리척결과 광주문제 해결, 그리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쏠려있는 시점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와같은 발언을 그것도 보란듯이 해외에 나가서 한 저의가 무엇인가? 아직도 국민을 우민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가?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직하고 진실된 몇몇한 모습을 보고 싶다. 말끝마다 국민을 들먹이고 국민을 하늘처럼 모신 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너무도 많이 보아 온 터라 더 이상 속지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숲정이 산책



### 성모 승천의 의미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에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DS 3903).

그런데 사실은 6세기 이전까지는 이 교의에 대한 아무런 전통이 없었고 후대에서도 격렬한 쟁론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이 교리를 계시 진리라고 선포한 것은 이 몽소승천(蒙召昇天) 교리가 성서에 근거를 둔 교리였기 때문이다. 구세사 안에서의 마리아의 역할과 기능은 “교회의 원형(Model)”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그분의 모습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몽소승천은 곧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셨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즉 마리아의 현양은 교회의 현양에 대한 보증이다. 또 마리아는 교회를 위한 표징

이 된다. 교회는 마리아에게서 자신의 정체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성모 신심은 우리 구세사 안에서의 그분의 역할과 기능을 성서에 입각해서 밝혀, 그분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칫 신화적이고 감상적인 사건들을 나열하여 감탄해하고 찬양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의 가슴을 칼로 에이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등의 감상적인 신앙으로 유도하지 않기를 공의회는 가르친다. 또 공의회는 여하한 형태의 마리아 공경을 거부하는 극단행위를 경계해야 하지만 ‘그릇된 과장’의 또 다른 극단행위를 아울러 경고한다(교회헌장 67). 우리는 ‘나그네길에 있는 하느님 백성의 희망이며 위로이신 성모님을 공경하되 말이나 행동으로, 갈라진 형제나 다른 누구에게도 교회의 참된 교리에 대하여 오해를 품게 하는 그 무엇도 삼가해야 한다(교회 헌장 67).



#### 성서와 함께

### 15. 이스라엘의 사회구조(A) : 가정

히브리인들의 사회구조를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 아버지, 구속자, 그리고 연대의식 등의 개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사회구조가 빚어낸 여러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유목생활의 초기부터 솔로몬시대의 절대왕정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온 피라민식의 사회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사회구조중 가장 적은 단위는 가정이다. 그들은 가정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다. 가정의 구성원들은 남편과 아내, 그들의 자녀들(결혼했든 안했든), 집안의 종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독신 친척들이다.

옛 이스라엘 사회에서 홀로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공포였다. “아담이 혼자있는 것이 좋지 않다”(창세 2,18). 구약성서에 보면 죽음으로 이별했거나 본 집에서 멀리 떨어져사는 홀로 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가정으로 영입되어야 한다고 엄격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안의 가장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다른 가족들에게처럼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을 지닌다.

가정이라 하면 주거할 수 있는 집과 가족관계를 말한다.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여 과일절을 지낼 수 있고(출애 12,3. 46), 그곳의 가장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이 분가

해야 될 자식들에게 나누어진다. 가장의 위치는 가장 중요하다. 아들은 자기자신의 원천인 그의 아버지를 항상 가정 안의 첫째 자리에 모셔야 한다.

생리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히브리인들은 남자가 생명을 주고 여자가 생명을 받아 키워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다고 보고, 자기자신을 ‘아무개의 아들 누구’라고 불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루가 4,22). 개인의 주체성은 오로지 아버지와의 연대성 안에서만 정립되었고,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최상의 권위를 행사하였다. 오랜 옛날엔 이 권위가 가족들의 죽음과 생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컸다. “유다는 머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창세 38,24). 동시에 아버지는 자기 집안 귀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지녔다.

성서에서 아버지의 개념은 이처럼 풍부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아버지에게 부여했던 권위와 책임을 대부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이양시키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서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권위와 책임이 축소된 현대판 아버지의 개념을 떠나 가족들에 대해 절대적 권위와 막중한 책임을 지녔던 옛 히브리인들의 아버지 개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 특 수 방 수

페인트와 같이 칠하여 방수하는 선진 방수제  
제품 : 적벽돌면, 타일면, 몰탈면, 옥상, 지하실용  
(전품목 수입제품) 적벽돌타일, 백화제거제  
판매시공·일반건축 전문

다림교역상사·호남지사 동양종합공사  
오 요한 (점역) ☎ 72-5475, 7760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살아있는 물은 없는가?

#### 혜 미 리 정 수 기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혜미리 정수기가 공해산업에 동참하였습니다.

한국정수산업(주) 전북지사 ☎ 86-4442  
이리대리점 3-9700·군산대리점 2-5235  
남원대리점 2-5105·정주대리점 2-8567  
혜미리와 동참하실 영업사원 및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 교 구 소 식

※ 축 / 은퇴식 권영균(안토니오) 신부님 : 8월16일 오전11시 부안천주교회

1. 교구 재정심의회 : 16일(화) 오후3시
  2. 대학생을 위한 피정 : 일시-9월17일(토)~18일(일) 대상-본당내 모든 대학생(교리교사, 성가대 등 단체포함) 접수-교육국(85-0041) 회비-1,000원 후원-평신도 사도직협의회
  3. 성소자 모임 : 21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4. 제1회 한국 가톨릭 장애인 신앙대회 : 9월9일(금)~11일(일) 장소-미리내 성지(경기도 용인) 대상-장애자와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참가비 없고, 민박가능한 문의처 : (02) 774-1357
  5. 성 빈센트 드 볼 자비의 수녀회 성소자 모임(성지순례) 일시-9월11일 오전 9시 수녀원 출발 순례장소-충북 제천 「배론」 성지 회비-3,000원(중식제공) 준비물-미사도구 목주 신침마감-8월20일까지 선착순 40명 연락처-440-060 수원시 장안구 21동 93-3 성 빈센트 드 볼 자비의 수녀회 천
  6.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자 모임 : 일시-8월20일 오후5시~21일 오후 3시 장소-광주 수도회 본원 연락처-광주직할시 북구 임동 67번지 전화(062) 54-0041~3
  7. 전주 어린이양의 모후 소년구리아 14일 1시30분 : 장소-전동천주교회
- ※ 감사드립니다 : 오 필로메나 모친상에 기도와 협조해 주신 주교님을 비롯하여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및 신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성팔 신부 형제 자매 일동.

# 요십이 (784) 김병오



## 잡 간 /

### 성당 '젓갈'

옛 부터 '성당 집' '성당 차' '성당 논' '성당 산' 등등의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최근 가톨릭 농민회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성당 물' 이라고 표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이제 '성당 젓갈' 이라는 또 하나의 신조어(新造語)가 탄생될 듯하다. 사연 인 즉, 얼마 전부터 지난 5월에 신설된 「서신동」 성당에 '젓갈류 전복 총 판매점' 이 개설 된 것이다. 주임신부이신 박 성팔 신부님은 그 '젓갈 판매점' 을 세운 목적은 '작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하는 데 현금을 모으기 위함' 이라 하시고 대신 '국내에서 가장 질 좋고 맛 있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을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신속하게 배달하겠다고 약속한다.

교우들은 물론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그러나 또 한편은 어떤 걱정이 먹구름 처럼 마음을 스쳐간다. 자의나 고의는 아닐지언정 어떤 유통과정의 잘못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 만에 하나 그 '성당 젓갈' 이 애초의 약속대로 '질 좋고 맛 좋으며 위생적인 젓갈' 에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젓갈이 아니 될 경우에는 돈은 벌어 성당은 지을지 모르나, 그 성당은 하느님의 성전이 아닌 장사꾼의 성전이 되고 말겠기 때문이다. '성당 물' 도 마찬가지다. 요즘의 시중 많은 생수나 약수가 오히려 대장균의 더 우글거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할 때마다 혹시 우리 '성당 물' 은 어떨까? 하는 조바심이 생기는 것은 그들을 못 믿어서는 결코 아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성당' 이라고 하는 인간 구원의 단체를 신용의 담보로 잡고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업은 자신들이 신용의 담보로 삼고 있는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를 심사 숙고하여 신명을 다해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일단 서신동 성당의 '성당 젓갈' 이 약속대로 '질 좋고 맛 좋으며 시중가격 보다도 저렴한 젓갈' 임을 믿는다. 더우기 그 젓갈을 사줌으로써 성전이 지어 진다면 어찌 협조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무쪼록 그 사업이 성공하여 서신동 성당 건립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자.

### 1분 명상

행복하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평을  
차지하리니.  
- 마태오 5.5 -  
**명동피부과의원**

###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생기신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외과 내

### 신창규치과의원

원장 : 신 창규 (이오스님)  
이 연자 (모니카)  
위치 : 인후아파트 2단지 앞  
☎ 4-2232

###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균 (이오스님)  
윤 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88 자 6-8417  
관동로 전주백화점 → 다카고 중천

### 성전신축기금

각종 젓갈류를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천주교 서신동교회 부녀회  
☎ 4-2214

한복 · 약혼 · 무용 · 파티 · 결혼

### 고려주단

전 광원 (마르코)  
김 삼례 (소피아)  
전주시 고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스렌즈  
원장 전문의 마 기환  
한 남희 (비리시다)  
오거리 국민은행 중앙지점 앞 2층  
☎ 85-2203

# 이리지구 본당소식

이리지구 철도카톨릭회 : 8월 17일(수) 오전10시 장인동천주교회

## \* 송학동

사제관 51-5340 주임신부 이태주  
사무실 3-9713 사목회장 오봉익

- \* 본당 건립을 위해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와 비품 봉헌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봉헌 접수 사무실)  
< 봉헌자명단 >  
모2 의의술50,000 송1 장정자20,000 모1 김영수50,000 이상 감사합니다.
- 1. 축! 첫영성체: 15일 오전10시 미사중(수고해 주신 손·수녀님 과 자모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2.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안내: 오전6시 오전10시
- 3. 축! 꾸르실리스타탄생: 전김순(부시아) 박희숙(요안나)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 4. 구역신자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현재30~50세대의 각구역을 10~15세대 기준으로 재편성 9월부터 받모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5. 꾸리아 윌레회: 금일 공식미사후(성당)
- 6. 본당 신부님 여름휴가: 17~19일까지 평일미사 없음(16일 아침 6시미사)
- 7. 구역형제회: 모현3구-16일 오후9시 김수진(하상바오로)씨대 모현1구-18일 오후2시 오정순(스페란시아)씨대
- 8. 청소년: 은총의 썬, 사랑의 썬Pr 16일(화) 오후3시
- 9. 금주전례: 해설-송기룡 독서①박봉기 ②조국현  
기도-정정선 부부  
차주전례: 해설-오봉익 독서①이재길 ②이영주  
기도-김찬권 부부

□ 지난주봉헌금: 291,820원 □ 교무금: 151,000원  
\* 본당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무금은 매일 봉헌 합니다.

## \* 신동

사제관 54-6313 주임신부 박종삼  
수녀원 54-1827 사목회장 최학렬  
사무실

- \* 본당 성지순례: 9월4일 장소-충북 연풍성지(대정당 경유) 참가비-가족전체1만원 개인5천원 (본당미사는 특전미사와 아침미사 2대만 있음)
- 1. 꾸리아 윌레회: 오후2시 소성당에서
- 2. 성모 몸소승천대축일 미사: 오전6시 오전10시(첫영성체 미사중 예)
- 3. 축! 꾸르실리스타 탄생: 문순례, 안근자 자매(여성26차)
- 4. 본당 울뜨레아 및 꾸르실리스타 환영식: 저녁미사후
- 5. 신부님 휴가: 16-19일까지
- 6. 수녀님 피정: 16-20일까지
- 7. 에파타 성서모임: 매주 월·화요일 저녁8시30분
- 8. 청소년: 은총의 모친Pr(16일실시)
- 9. 중·고 교리교사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 10. 금주전례: 해설(공식)이의식(저녁)노대식  
독서①김용만 ②백운옥 봉헌-고용환 육순덕부부  
기도-김순례 차미자자매  
차주전례: 해설(공식)김봉건(저녁)이귀영  
독서①김학현 ②전준설 봉헌-이종범 황병순부부  
기도-문옥자 신봉자자매

□ 지난주봉헌금: 449,750원 □ 교무금: 347,000원

## \* 영등동

사제관 54-2202 주임신부 안복진  
사무실 52-2240 사목회장 송상섭

- 1. 꾸리아 윌레회: 금일 공식미사후-소성당
- 2. 꾸르실리스타 탄생: 여성26차 최순자(필로메나) 김용숙(유리안나)자매 축하드립니다.
- 3.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안내: 의무축일  
1. 10시30분 공식미사 오후3시-아동미사(초중고생) 오후8시 저녁미사  
2. 영세식-오전9시 대부모와 같이 참석합니다.
- 4. 성모회 윌레회: 차주 공식미사후

- 5. 초중고하기교리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구역 애덕회 지도교사 일일교장 동부약국-법안나50,000원  
신석천10,000원 김삼너-유료수3마스 남중동-이명30,000원  
영2구-이명10,000원
- 6. 금주청소년담담: 김순의 기운 16일 학생회20일
- 7. 금주전례: 해설-김정남 독서1 소병희 2 이관우  
기도-김봉현-최영기(심비아) 강영희(아네스)자매  
차주전례: 해설-민철기 독서1 신상길 2 위대우  
기도-김봉현-이남욱(스콜라스티카) 김미자(부시아)자매

□ 지난주봉헌금: 556,080원 □ 교무금: 259,000원

## \* 주현동

사제관 54-9030 주임신부 범영배  
사무실 2-3993 사목회장 김한기  
수녀원

-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15일 오전6시, 오전10시, 오후8시
- \* 본당 20주년 기념사업에 정성된 봉헌을 바랍니다
- 1. 금주성서: 여호수아20,1~9 베드로II3,1~18
- 2. 35회 형제회, 성모회, 초중고 후원회: 오일 공식미사후
- 3. 제5차 중학생 정기총회: 15일 오후2시 장소-2층 회의실
- 4. 구역형제회 2호: 17일 저녁8시30분, 동산1,3구 주회1,2구 평화2구 인화1,2구 중앙동 식탄동 동산4구, 본당미사-오전9시, 구역미사-동산6구
- 5. 꾸리아 옥외행사: 임시-19일 장소-충북화양개구 신청-15일 공식미사후까지 회비3,000원
- 6.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 성바오로회: 나유주 공식미사후
- 7. 금주전례: 해설-김성환 독서1 송기분 2 허이봉  
기도-민승덕 봉사-상규영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순봉 독서1 변동일 2 황옥수  
기도-김완우 봉사-고석봉 부부
- 8. 금주청소년: 구세주의 모친Pr

□ 지난주봉헌금: 439,580원 □ 교무금: 421,400원  
□ 20주년 특별헌금: 70,000원 총계12,601,000원

## \* 창인동

사제관 52-9073 주임신부 문정현  
사무실 2-2325 보좌신부 이동  
유치원 2-1028 사목회장 김은홍

- \* 본당 수녀원 신축과 회의실 증축은 우리모두 일치된 마음의 기도와 정성된 봉헌으로 이루어집니다.
- 1. 재속프란치스코 형제회: 오후2시(창인동 소성당)
- 2. 성모승천 대축일: 첫미사(오전5:30) 공식미사(10시) 저녁미사(오후8시)
- 3. 철도가톨릭회: 8월17일(수) 오전10시(6호실)
- 4. 성령기도회: 8월19일 저녁미사후-가르침 "이인복교수" 완역에 이르는 길 뉴욕타임즈 칭취
- 5. 전신자 교육: 8월19일(토) 오후8시 주제-오늘과 내일
- 6. 축! 꾸르실리스타탄생: 류경수(스콜라스티카)자매 수고하셨습니다.
- 7. 축영명 축하식: 본당신부님(24일) 축하식(21일) 공식미사후 보좌신부님(28일) 공식미사후 영적예물 봉헌바랍니다.
- 8. 구역형제회: 중앙2구(16일) 오후3시 고세라나씨대 남중4구(16일) 오후2시 송해성당  
구역형제회 담당자 변경: 창인123 중앙12(보좌신부님) 창인4 삼산12 마산(본당신부님) 남중12345(이수녀님) 남중678910(원상수녀님)
- 9. 본당은 우리의 가정: 교무금 및 수녀원 신축헌금 원별납부로 본당운영 도움사다.
- 10. 청소년: 창인2구(16일) 학생회(20일)
- 11. 금주전례: 해설-김성자 독서1 순명선 (2)박명기 기도-남중5구  
차주전례: 해설-신명숙 독서1 서장경 (2)이원성  
기도-남중6구  
(첫미사-강윤순 저녁미사-정순기)  
성모승천대축일: 첫미사-최병석 공식미사-정순기  
기 저녁미사-배애자

□ 지난주봉헌금: 628,030원 □ 교무금: 411,000원